선군을 옹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정치학 박사학위론문)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위원장,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 위원장,
영국조선친선협회 위원장 더모트 하드손

오늘의 세계에서 선군은 반제계급투쟁의 가장 위력한 무기인 동시에 자주성과 사회주의를 수호하는 보검이다. 선군은 곧 인민조선이며 세계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조선의 투쟁이라고 할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조선혁명의 력사는 선군의 력사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2003 년 1 월에 불후의 고전적로작 《선군혁명로선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로선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를 발표하시였다.

우리는 선군사상과 선군정치에 매혹되였으며 물론 자금도 부족하였지만 세계에서 제일 먼저 조직된것들중의 하나로 되는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를 2003 년 8 월 13 일에 결성하였다.

이른바 《새로운 세계질서》와 전쟁과 무질서를 산생시키는 《세계화》를 강요하며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제국주의와 단독으로 맞서 싸우고 있는 조선은 우리를 크게 놀라게 하였다.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단 한나라밖에 없다.

그 나라가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뜻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받는 조선이다.

선군은 사회주의는 리상이나 평화로운 조건, 또는 제국주의와의 협력이 아니라 제국주의와의 대결속에서 전진한다고 보고있다. 현시대가 치렬한 투쟁의 시대인것으로 하여 선군은 벗들속에서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있다. 선군사상은 사회주의를 질식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쑤들의 침략위협과 온갖 책동에 직면하고있는 나라들의 실정에 맞는 최고의 사상이다. 제국주의와 세계자본과의 협력하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자고 주장하는 자들은 옳지 못하다.

선군사상을 옹호하는것은 자주성을 추켜든 혁명적이며 반제적인 인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선군정치와 조선의 옹호는 모든 반제적이며 진보적인 사람들이 하여야 할 일이다.

론문은 선군사상에 대한 해설을 주는 동시에 그에 대한 비평을 론박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론문이 시간상 관계로 하여 기대와는 달리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위대한 선군사상에 대한 보다 깊이있는 학습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자들의 비방으로부터 선군사상을 옹호하는데 기여를 하게 되리라고 본다.

론문의 장, 절체계는 다음과 같다.

제 1 장에서는 선군사상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선군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제국주의와의 힘의 대결을 동반하는것만큼 혁명의 승리는 총대, 혁명무력에 달려있다는 근본진리를 밝혀주고있다.

선군사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신 조선혁명과 반제자주위업의 지도적지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 년 6 월 30 일부터 7 월 2 일까지 진행된 카륜회의에서 총대중시, 군사중시의 혁명원리가 담겨진 무장투쟁로선, 선군혁명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선군사상의 창시를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상 처음으로 내놓으시고 혁명과 건설의 전기간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신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과 로선을 선군사상으로 정식화하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지침으로 정립체계화하시였다.

로동계급의 선행한 혁명리론은 무장투쟁은 정권이 교체되는 결정적인 시기 또는 이른바 《교체의 시점》에서 벌어지는 잠정적인 투쟁이라고 주장하여왔다.

선군사상은 잠정적인 전술이 아니라 총대를 중시하고 그 위력으로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는것을 근본목적으로 하고있는 혁명사상이다. 선군

사상이 있었기에 조선혁명은 력사의 온갖 풍파를 뚫고 승승장구하여올수 있었으며 조선인민은 인류가 알지 못하는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며 최후승리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있는것이다.

제 1 절에서는 선군사상의 본질적내용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선군혁명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군사를 중시하고 앞세우며 혁명군대를 핵심력량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전반을 밀고 나갈데 대한 사상입니다.》

선군사상은 제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혁명세력과의 힘의 대결속에서 발생발전하는 혁명운동의 합법칙성과 혁명력량들가운데서 가장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집단인 혁명군대의 특성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군사를 최우선시하고 혁명군대의 역할을 최대로 높일것을 요구하는 사상이다. 선군사상에는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근본비결과 정치와 사상, 경제와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나라와 민족의 전면적개화발전을 떨쳐나갈수 있는 방도가 총대, 혁명군대를 중심에 놓고 과학적으로 명시되여있다.

(1)에서는 선군혁명원리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선군혁명원리는 무엇보다도 혁명은 총대에 의하여 개척되고 전진하며 완성된다는것이다.

혁명이 총대에 의하여 개척된다는것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이 무장투쟁의 방법으로 시작된다는것이다. 인류력사를 놓고 보면 그 어느 착취계급도 절대로 자기의 정치적지배권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반혁명적폭력에 의거하여 인민대중의 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인민대중이 착취사회제도, 반동정권을 뒤집어엎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에 무장을 틀어쥐고 조직적인 무장투쟁부터 전개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26 년 10 월 17 일 일제를 타도하고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며 조선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고 나아가서 모든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세계에 공산주의를 건설하는것을 강령으로 하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그 이후 《무장은 우리의 생명이다! 무장에는 무장으로!》라는 혁명적구호를 제시하시였다. 이 구호에는 무장한 적을 때려부시고 조국을 해방하며 주체혁명을 승리에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 총대에 있다는 총대철학이 담겨져있었다. 총대철학을 신념으로 간직했기에 조선인민은 당시 세계적인 군사강국이였고 아시아의 맹주로 날뛰던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할수 있었다.

조선혁명뿐아니라 로씨야, 중국, 꾸바 등 여러 나라들에서의 혁명의 승리도 례외없이 총대로 개척한 투쟁의 결과였다.

혁명이 총대에 의하여 전진하며 완성된다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위업이 강력한 군사력에 의하여 성과적으로 수행되여나간다는것이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세력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말살하기 위하여 온갖 책동을 다한다. 이런 조건에서 제국주의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자면 강위력한 힘, 총대가 있어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근위서울 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 거룩한 령도의 자욱을 새기심으로써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시였다. 력사의 그날로부터 인민군군부대들과 구분대들을 수많이 찾고 찾으시며 혁명무력건설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60년대말부터 혁명과 건설전반에 대한 선군정치를 펼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총대중시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드시고 원쑤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조선의 존엄과 안전을 수호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총대를 강화하고 그에 의거하여 제국주의자들의 강경에 초고압강경으

로 단호하게 대응하였기에 조선은 그 누구도 범접할수 없는 강위력한 나라로 존엄떨치고있는것이다.

력사와 현실은 착취계급을 청산하고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기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이 강력한 혁명무력에 의거하는 무장투쟁의 방법으로 시작되고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위협과 침략, 도전과 고립압살책동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도 혁명의 총대에 의하여 담보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선군혁명원리는 다음으로 군대는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것이다.

군대가 당이라는것은 혁명군대에 의하여 당의 존재와 발전이 좌우된다는것이다. 당이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을 짓부시고 령도적정치조직으로서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자면 철두철미 군대를 틀어쥐여야 한다. 군대를 틀어쥐지 못한 당은 사회에 대한 정치적령도는 말할것도 없고 그 존재자체도 유지할수 없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사를 놓고보면 조선혁명만큼 어렵고 복잡한 혁명, 전인미답의 간고한 길을 헤쳐온 혁명은 찾아볼수 없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두 차례의 혁명전쟁, 외세에 의하여 국토가 분렬된 조건에서 진행된 두 단계의 사회혁명과 사회주의건설, 여러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붕괴와 자연재해로 인한 겹쌓이는 난관을 극복하며 진행한 사회주의수호전과 강국건설을 위한 투쟁 등 그 간고함과 복잡함을 다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다. 이처럼 엄혹한 정세속에서,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더 무너지고말았을 최악의 역경속에서 조선로동당이 혁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올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인민군대가 당의 군대로서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왔기때문이다.

국가정권을 쟁취하고 지키기 위한 투쟁은 인민대중과 반동세력사이의 가장 치렬한 힘의 대결전이다. 반동세력은 인민대중이 정권의 주인으로 되는것을 보고만 있지 않으며 스스로 정권의 자리에서 물러나려 하지 않는다. 강력한 혁명무력이 없이는 반혁명의 필사적인 반항을 짓부시고 정권을 쟁

취할수도 고수할수도 없다. 지구상의 수많은 나라들이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에게 자주권을 송두리채 빼앗기고 수백년동안 노예살이를 강요당하거나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하지 못하게 된것은 군대가 없었거나 약한데 중요한 원인이 있었다. 혁명적인 정권의 탄생과 강화발전의 전과정이 총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혁명군대에 의하여 담보되기때문에 군대는 곧 국가로 되는것이다.

군대가 인민이라는것은 혁명군대가 있어야 인민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다는것이다.

혁명군대의 중요한 사명은 원쑤들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와 인민의 안녕을 지키고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담보해주는데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독단과 전횡, 강권행위가 더욱더 로골화되고있는 오늘의 조건에서 혁명군대가 있어야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담보할수 있다.

(2)에서는 선군혁명원칙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선군혁명원칙은 무엇보다도 군사선행의 원칙이다.

군사선행의 원칙은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는데서 군사를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며 거기에 가장 큰 힘을 넣을데 대한 원칙이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에서는 당을 창건하고 정권을 세우며 경제와 문화를 건설하는 등 수많은 절박하고도 중대한 문제들이 제기된다. 이 모든 사업가운데서 군사를 가장 선차적인 사업으로 내세우는것이 군사선행의 원칙이다.

지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사를 놓고 보면 로동계급의 당과 군대와의 호상관계에서 볼 때 당을 먼저 건설하고 그에 기초하여 혁명무력을 창건한 선당후군의 력사라고 말할수 있다.

맑스는 1847년 6월 엥겔스와 함께 런던에서 《정의자동맹》을 개조하여 국제로동계급의 첫 정치조직인 《공산주의자동맹》을 창건하는것으로써 투쟁의 첫 걸음을 떼였다. 그후 맑스는 각국 로동계급을 묶어세우기 위하여 정력적인 투쟁을 벌렸으며 1864년 9월 런던에서 《국제로동자협

회》, 즉 제 1 국제당을 창건하였다.

레닌은 1903 년 7 월 벨지끄의 브류쎌에서 열린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 2 차대회에서 맑스주의적당강령을 채택하도록 함으로써 제 2 국제당에 속한 당들과는 구별되는 새형의 당, 로씨야로동계급의 당인 맑스주의당 (볼쉐비크당)을 창건하였다. 그후 레닌은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 7 차 전로대표자회에서 부르죠아민주주의혁명으로부터 사회주의혁명에로 이행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규정하였으며 《모든 정권을 쏘베트에로!》라는 구호를 제시하고 10 월 25 일 사회주의 10 월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었다. 레닌은 볼쉐비크당의 령도밑에 제 2 차 전로쏘베트대회에서 쏘베트정권을 조직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1918 년 1 월 로농붉은군대를, 1918 년 2 월 로농붉은해군을 조직하였다. 로씨야에서의 10 월혁명을 분수령으로 하여 앙양기를 맞이한 세계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먼저 당을 창건하고 다음에 군대를 조직하여 혁명투쟁을 벌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였다.

중국에서는 1921 년에 중국공산당이 먼저 창건되고 그 지도밑에 1927 년 8 월 1 일 남창폭동에 참가하였던 무장폭동부대들과 호남지방농민폭동군이 합류되여 로농홍군이 조직되였으며 웰남에서도 먼저 당을 창건하고 그 다음에 군대를 조직하여 혁명투쟁을 벌리였다.

아일랜드에서 아일랜드독립투쟁을 위한 신페인당 (우리 게일족당) 이 1905 년에 결성되였다. 당의 군사조직인 아일랜드공화군은 1913 년까지 조직되지 못하였다. 1918 년에 아일랜드지원병군이 아일랜드공화군으로 되였다.

이와 같이 당을 먼저 창건하고 그 다음에 군건설을 하는것이 하나의 움직일수 없는 혁명공리로 인정되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2 년 4 월 25 일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바로 혁명무력에 의거하여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시였으며 그 다음에 당도 국가도 창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에도 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

마다 언제나 군사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고 혁명무력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혁명과 건설의 승리적전진을 군사적으로 확고히 담보하시였다.

1950년대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총대에 의거하여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를 이룩하신것은 인류력사에 새겨진 군사상의 기적이였다. 조선인민군은 정규무력으로 개편된지 겨우 2년남짓한 때에 수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너무도 강대한 적과 맞섰다. 하지만 조선인민은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총대를 앞세워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선견지명과 탁월한 군사적지략과 령도가 있었기에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하였다.

조선혁명의 경험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총대, 군사에 달려있기때문에 혁명투쟁에서는 언제나 군사를 혁명의 제1선의 위치에 놓아야 한다는 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선군혁명원칙은 다음으로 선군후로의 원칙이다.

선군후로의 원칙은 혁명군대를 혁명과 건설에서 주력군으로 내세우는 원칙이다. 혁명의 주력군은 혁명의 주체를 이루는 혁명력량가운데서 핵심적지위를 차지하고 선봉적, 주도적역할을 하는 혁명집단이다.

맑스는 19세기 중엽에 발전된 서방자본주의나라들의 현실을 반영한데 기초하여 로동계급이 자본의 지배와 온갖 착취제도를 청산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할 사명을 지닌 가장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계급이라는 것을 밝히고 로동계급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규정하였다. 맑스와 엥겔스는 저서《공산당선언》에서 부르죠아지에 대립하고있는 모든 계급들가운데서 로동계급만이 참으로 혁명적인 계급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자본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잃을것은 철쇄이고 얻을것은 전세계라고 하였다.

당대 자본주의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이 리론은 그 시기와 그 이후의 일정한 시기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긍정적역할을 하였다. 빠리콤뮨이 세상에 출현하고 로씨야에서 사회주의 10월혁명이 승리한 력사적사실이 이것을 증명하였다. 지난 20세기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로동계급이 자본주의제도를 뒤집어엎고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섰다.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는 로동계급을 핵심으로, 주력으로 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벌리는것이 어길수 없는 하나의 공식처럼 인정되였으며 결국 많은 사람들이 로동계급이 혁명에서 주요력량이 되여야 한다는것을 절대불변의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맑스주의혁명리론이 나온 때로부터 백수십여년이 지나갔다. 그 때로부터 많은것이 변했다는데 대하여 류의하여야 한다. 맑스와 엥겔스가 한세기 반전에 내놓은 리론과 공식은 현시대에는 맞지 않게 되였다.

혁명의 주력군에 관한 문제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어떤 혁명에서나 고정불변한것으로 될수 없다. 그리고 계급관계에 기초하여서만 해결할 문제도 아니다. 어느 계급, 어느 사회적집단이 혁명의 주력군으로 되는가 하는것은 그가 혁명과 건설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그의 혁명성과 조직성, 전투력에 의하여 규정된다.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군대는 자본주의지배계급의 계급적지배와 억압의 수단으로 되고있다.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도 군대가 교육도 받지 못하고 무식하고 그 어떤 일도 할줄 모르는 거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병사들은 《땅딸보대원》으로 불리우며 멸시되고있다. 영국에서는 군대와 인민과의 분쟁이 벌어지고있다. 병사들이 맥주집에 나가 취해가지고 시민들을 때리군 하는것은 매일 보게 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이것은 제국주의사회에 내제하는 군대와 인민사이의 뿌리깊은 대립을 보여주고있다.

조선에서 인민군대는 총대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수호하고 사회주의건설의 제일 어렵고 힘든 전선들마다에서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는 혁명의 기둥부대이다. 인민군대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조국과 혁명, 인민에 대한 헌신성, 계급적원쑤에 대한 투쟁정신과 견인불발의 의지, 완강한 공격정신에서 다른 집단들의 본보기로 되는 가장 혁명적인 집단이다. 조선에는 위력한 군민대단결이 있으며 군대와 인민의 운명은 사회주의수호의 길에서 하나로 이어져있다. 조선에서는 군인이 되는것이 커다란 영예로 간

주되고있으며 군인들은 사회의 존경을 받고있다.

(3)에서는 선군정치리론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선군정치리론은 무엇보다도 선군정치의 본질과 지위를 과학적으로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선군정치는 본질에 있어서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주력으로 하여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보위하고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정치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정치가 추구하는 첫째가는 목적은 국가의 주권 및 령토완정, 외세의 침략으로부터의 국가와 인민의 안전보장이다. 정치의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자면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 어떤 정치를 막론하고 국방력문제를 거들지 않은 정치는 별로 없다. 선군정치는 군사를 당과 국가의 로선과 정책작성의 가장 중심적인 문제로 내세우고 그 강화에 첫째가는 힘을 넣는 정치방식이다.

정치에는 그것이 추구하는 정치적목적이 있으며 그것을 어떤 정치적력량에 의거하여 실현해나가는가 하는것은 정치마다 다 같지 않다. 때문에 정치방식들은 그것이 의거하는 정치적력량 특히 그것이 정치실현에서 핵심, 기둥으로 삼고있는 정치적력량에 의해서도 서로 구별되게 된다. 선군정치는 군대를 핵심으로, 가장 믿음직한 기둥으로 삼는다.

선군정치는 제국주의나라나 자본주의나라들의 군사정권과는 구별된다.

군사정권은 착취사회에서 반동적지배계급이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군사화하고 침략전쟁을 위한 군사력증강에 복종시키는 정치를 말한다. 일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사회정치적, 경제적정세가 불안정할 때에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파쑈적이며 극히 반인민적인 통치를 실시하여왔으며 이러한것은 독점적자본주의의 지배계급을 대표하여 진행되였다. 군사정권은 자본주의 특히 독점자본주의단계에 와서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그 주요특징들이 나타났다. 침략과 전쟁준비를 위하여 군비를 늘이고 군사력을 증강하며 경제의 군사화를 다그치는것은 군사정권의 기본특징으로 되고있다.

이로부터 군사정권은 필연적으로 국가체계를 더욱더 반동화하고 전쟁소동을 일삼으며 자국내 인민들에 대한 착취와 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다른 민족과 국가들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감행하게 된다.

선군정치는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워 그 어떤 침략책동에도 대처할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마련하는데 가장 선차적인 힘을 넣는다. 그리하여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견결히 수호하고 인민대중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킬수 있는 실제적인 담보를 마련한다.

군사정권은 제국주의자들이 저들의 세계제패와 독점적고률리윤을 위하여 자국내 근로대중을 가혹하게 착취하고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자주권을 짓밟고 억압착취하기 위한 침략적군사력을 강화하는데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반혁명적이고 반인민적인 정치이다. 세계는 도이췰란드의 히틀러와 이딸리아의 무쏠리니, 일본의 군사독재정권, 칠레의 삐노체뜨, 1960년대의 브라질군사정권, 그리스와 일부 아프리카나라들, 남조선의 박정희, 전두환, 로태우정권과 같은 반동적이고 파쑈적이며 반인민적인 정권을 알고있다.

선군정치와 군사정권은 사회발전에서 노는 역할에서도 근본적으로 다르다.

선군정치는 혁명군대를 핵심으로, 주력으로 하여 조국을 보위하는것과 함께 전반적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게 한다. 선군정치에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혁명군대의 사상관점과 투쟁기풍, 생활방식을 본받아 비상한 정신력으로 경제와 문화, 과학과 교육, 체육과 문학예술을 비롯한 전반적사회생활분야에서 급속한 발전과 변혁을 이룩해나가고있다.

군사정권은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군사화하고 침략적군사력의 증강을 위해 희생시킴으로써 사회생활전반을 황폐화하고 사회의 발전을 극력 저애한다. 군사정권은 그 어떤 로동운동도 계급투쟁도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인민대중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마저 말살하고 전대미문의 야수적인 폭압정치를 실시한다.

선군정치의 지위는 그것이 사회주의의 기본정치방식이라는것이다.

선군정치는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정치방식이다. 선군정치는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제국주의의 침략책동이 계속되는 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정치방식이다.

선군정치리론은 다음으로 그 근본바탕과 그가 의거하는 3대기둥에 대하여 밝혀주고있다.

선군정치의 근본바탕이란 선군정치의 존재와 성과적실현을 담보하는 사상정신적요인을 말한다.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다. 그런것만큼 사회주의정치는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사상정신을 지니고 높이 발양할 때 성과적으로 확립될수 있고 빛나게 실현되여나갈수 있다. 선군정치의 근본바탕은 혁명적군인정신이다.

선군정치의 3대기둥이란 선군정치가 자기의 정치리념, 정치적목적을 실현하는데서 의거하는 3대혁명력량을 말한다. 선군정치는 혁명적당과 혁명무력, 일심단결의 3대혁명력량을 기둥으로 하는 정치방식이다.

혁명적당은 선군정치의 향도적력량이다. 이것은 혁명적당이 선군정치실현에서 령도적지위를 차지하고 령도적역할을 수행하는 정치조직이라는것이다. 조선로동당은 선군정치실현에서 령도적지위를 차지하고 령도적역할을 수행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은 선군의 기치높이 천만군민을 선군혁명위업수행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선군혁명위업수행의 령도적정치조직이다.

혁명무력은 선군정치의 기수이다. 흔히 기수라고 하면 대오의 앞장에서 기발을 들고나가는 사람을 가리키는것처럼 혁명무력이 선군정치의 기수라는것은 혁명군대가 선군정치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선봉대, 돌격대라는것이다. 인민군대는 조국과 혁명을 총대로 지키는 무장대오로서 당과 수령옹위에서 그 누구보다도 투철하며 원쑤들의 책동으로부터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결사보위한다. 인민군대는 당과 수령의 사상과 로선을 관철하는데서 가장 전투력있는 전위대오이다.

일심단결은 선군정치의 강력한 추진력이다. 이것은 일심단결이 선군정치를 굳건히 떠받들고 힘있게 추동한다는것이다. 일심단결은 혁명의 주력군인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본보기로 하여 광범한 대중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결속된 사상적순결체, 혁명적동지애와 의리에 기초하여 뭉쳐진 도덕의리적결합체이다. 일심단결은 공동의 정치적목적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광범한 대중을 한결같이 일떠세우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선군정치를 강력하게 추동해나간다.

선군정치리론은 다음으로 선군령도체계에 대하여 밝혀주고있다.

선군령도체계는 최고사령관의 유일적령도체계이다. 선군령도체계는 최고사령관의 명령일하에 따라 혁명군대를 비롯한 전반적혁명무력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제도와 질서이다. 선군령도체계는 국방중시의 국가관리체계이다. 국방중시의 국가관리체계는 국방위원회가 일체무력에 대한 지휘통솔권뿐아니라 군수공업을 비롯한 국방사업전반에 대한 지도권까지 행사하는 관리체계이다.

제 2 절에서는 선군사상과 주체사상의 호상관계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선군사상을 주체사상과 다른 별개의 사상으로 보는것은 완전히 무의미하며 사실상 반동적인 주장이다. 진실은 가리울수 없는 법이다.

선군사상은 철저히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으며 주체사상의 구현이다.

선군사상은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할수 있게 한다.

주체사상은 자주성을 핵으로 하는 자주의 혁명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의 길을 과학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자주성은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생명인 동시에 인민대중의 생명,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제국주의자들과의 치렬한 힘의 대결을 동반한다. 력사는 인민대중의

생명, 나라와 민족의 생명인 자주성을 고수하고 빛내이려면 제국주의자들의 반혁명적폭력을 짓부셔버릴수 있는 혁명의 총대가 있어야 한다는것을 보여주는 귀중한 경험과 피의 교훈들을 수많이 남기고있다.

오늘 제국주의련합세력들은 사회주의의 보루인 조선을 무너뜨리려고 각방으로 미쳐날뛰고있다. 여기서 그들이 만능의 수단으로삼고있는것이 군사력이다.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은 군사력에 의거하여 전례없이 강화되고있으며 그리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은 엄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주체사상의 근본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선군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총대중시를 자기의 근본목적으로 내세운다. 선군사상은 총대, 혁명군대를 중시하고 앞세움으로써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전적으로 옹호할수 있게 한다.

선군사상은 다음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나갈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할수 있게 한다.

주체사상은 혁명운동은 주체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발생발전하는 주체의 운동이라는 혁명원리를 밝혀주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주체적요인에 근본적의의를 부여하고 그 역할을 높여 풀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력사적경험은 매개 나라의 주체적혁명력량이 튼튼히 준비되면 외부의 지원이 없이도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지만 주체적혁명력량이 준비되여있지 못하면 밖으로부터의 지원이 아무리 커도 혁명에서 승리할수 없다는것을 한두번만 보여주지 않았다.

1936년 2월에 정권을 잡은 에스빠냐인민전선이 정권을 빼앗기게 된것도 물론 제국주의렬강들의 음모책동과 특히 파쑈도이췰란드와 이딸리아의 로골적인 무력간섭이 그 중요한 원인으로 되였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주체적력량이 준비되여있지 못한데 있었다. 당시 에스빠냐혁명에 대한 국제

적인 지지성원은 매우 컸다. 이전 쏘련은 4억 1천 7백만루블에 해당하는 원조물자와 비행기, 땅크 등 중무기들을 에스빠냐인민에게 대주고 군사고문들과 지원병들까지 파견하였다. 1938년 8월 빠리에서는 《에스빠냐원조 국제조종위원회》가 창설되여 2년간에 8억프랑의 원조기금과 많은 식량, 피복, 의약품들을 모집하여 보내주었다. 또한 싸우는 에스빠냐인민을 위하여 유럽의 17개국 공산당들의 회의가 열리고 국제적인 지원운동이 강화되였으며 국제려단이 조직되고 세계각국에서 수만명의 지원병들이 에스빠냐전선에 달려갔다. 영국에서는 해리 폴리트의 지도밑에 공산당이 국제려단의 영국대대를 조직하고 2 500명의 지원병을 파견하였다. 그중에서 500명이 반파쑈위업에 자기의 목숨을 바치였다. 아일랜드는 전 아일랜드공화군 사령관인 프랭크 라이언수하에 250명의 지원병들로 코놀리 콜럼을 조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체가 튼튼히 준비되여있지 못했기때문에 에스빠냐인민전선은 혁명의 전취물을 끝까지 고수하지 못하였다.

혁명의 주체는 수령을 중심으로 당의 두리에 혁명군대를 기본으로 하여 전체 인민이 하나로 통일되여야 이루어질수 있다. 선군사상은 사회의 그 어느 집단보다도 혁명성, 조직성, 규률성이 강한 혁명군대를 주력군으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도록 함으로써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위력을 비상히 높일수 있게 한다.

선군사상은 다음으로 혁명과 건설에서 사람들의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할수 있게 한다.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원리를 새롭게 밝히고 혁명과 건설에서 사람들의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내세우고있다.

사람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수준이 높을수록 혁명투쟁에서 견결한 립장과 태도를 지키며 강의한 의지를 가지고 혁명투쟁에 적극 참가하여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끝까지 완강하게 투쟁하게 된다. 선군사상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로동계급의 계급의식, 혁명정신의 최고표현인 혁명적군

인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할것을 요구한다. 혁명적군인정신은 조선인민이 고난을 박차고 분연히 떨쳐일어나 반미대결전에서 승리를 이룩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장엄한 진군길에 오르게 한 원동력이였다. 혁명적군인정신은 조선인민에게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신심을 잃지 않고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의지를 키워주었고 혁명과 건설에서 기적을 낳게 하였다. 이로부터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갈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훌륭히 구현할수 있게 한다.

선군사상은 주체사상을 절대적으로 담보해주는것으로 하여 주체사상과 본질적으로 련관되여있다.

제 3 절에서는 선군사상이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이라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주력으로 하는 선군사상은 새롭고 독창적인 사상이다. 그러나 교조주의와 기회주의에 빠진 많은 사람들은 이 새로운 개념에 대하여 불안한 감을 느끼고있다. 일부 사람들은 로동계급의 역할과 군대의 역할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의 교리를 그대로 인용하려 하고있다. 이러한 견해들은 맑스-레닌주의가 력사적제한성을 가지고있다는 사실을 맹목적으로 무시하고있다.

선군사상은 무엇보다도 총대가 계급의 총대, 혁명의 총대라는 관점에서 그것이 계급투쟁의 가장 위력한 무기라는것을 밝혀주고있다.

선군은 총대가 계급적원쑤들과는 추호의 타협과 양보도 허용하지 않는 계급투쟁의 무기라는 관점에서 나라의 군사력을 철저히 계급적리익, 혁명의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는데 첫째가는 사명을 둔 군사력으로 건설하고 강화해나간다.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쑤들과의 힘의 대결을 하는 가장 집중적인 계급투쟁의 한 형식인것으로 하여 조선의 선군정치는 계급투쟁의 가장 높은 형태를 대표한다.

선군사상에서는 결코 군대를 계급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것은 잘못된것이며 무의미한것이다. 인민군대는 사회에서 가장 전투

력있고 힘있는 집단이지만 어디까지나 하나의 집단이며 계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조선인민군은 로동계급의 군대이며 선군의 계급적특징은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정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지니고있는 계급적특징이다.

현시기 사회에는 두가지 군대밖에 있을수 없다. 하나는 착취계급의 군대이고 다른 하나는 로동계급의 군대이다. 착취계급이 자기의 주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무력을 사용하고있는것만큼 로동계급에게는 착취계급의 주권을 때려부시고 새 사회를 건설하는 혁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무장력이 필요하다. 자산계급의 군대도 아니고 로동계급의 군대도 아닌 그 어떤 중간군대란 결코 있을수 없다.

선군정치는 군대를 강화하고 국방공업을 건설하는것을 제국주의와 온갖 원쑤들과의 대결과 투쟁에서 계급적원칙,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선차적인 사업으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밀고나간다.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는 선군정치에서 총대중시, 군사중시는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에 견결히 맞서 싸워 반드시 승리하고야말겠다는 투철한 계급적원칙의 집중적표현이다.

선군사상은 다음으로 로동계급이 혁명과 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인민군대는 혁명의 주력군이다. 하지만 조선에서 로동계급이 노는 역할은 결코 낮아지거나 도외시되지 않았다. 조선에서 로동계급의 역할의 중요성은 인정되고 또 중시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화주의헌법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 그리고 기타 근로자들에게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조선은 일부 부패한 반동들이 말하는 군사국가도 아니며 조선에서는 일부 수정주의자들과 기회주의자들이 해석하려고 하듯이 군대가 로동계급으로부터 정권을 이양받은적은 결코 없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는 로동계급을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으로 명명해주시였다.

조선의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은 주체혁명의 핵심부대, 나라의 맏아들로서 당의 사상과 위업을 앞장에서 받들며 경제강국건설에서 자기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고있다.

선군을 비방하는 자들은 어리석게도 자본주의나라의 로동자들속에는 다른 부문의 로동자들에 비하여 보다 전투적이며 선진적인 로동자들이 언제나 있었다는데 대하여 망각하였다. 실례로 영국에서 광부들은 그가 지니고있는 계급의식, 전투력과 조직력이 상점로동자들과 농업로동자들, 기타 다른 부문의 로동자들보다 훨씬 더 높았던것으로 하여 영국로동계급의 선봉적인 력량으로 간주되였다. 광부들은 영국에서 수십년동안 계급투쟁의 주력으로 되였다.

선군사상에서는 로동계급의 역할을 부정한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역할을 높여주고있다. 조선의 로동계급에게 사회주의건설을 밀고나갈수 있는 힘을 안겨준것이 바로 조선인민군의 총대, 선군의 총대이다. 선군정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보위하고 제국주의자들에 의한 자본주의복귀를 방지하며 정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리익을 현실적으로 옹호하고있다.

선군사상은 치렬한 반제계급투쟁이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시대에서 군대의 역할을 보다 높여 계급투쟁에 관한 리론을 완성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있다. 선군조선의 비타협적인 반제적립장과 사회주의수호는 자본주의세계의 로동자들의 계급투쟁을 크게 고무해주고있다.

제 4 절에서는 선군사상이 반제반수정주의사상이라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1)에서는 선군사상이 반제사상이라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선군사상은 총대, 혁명군대를 강화하여 제국주의와의 군사적대결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해나가는 옳바른 길을 밝혀주고있다.

선군사상은 우선 반제군사전선의 제일전초병인 혁명군대를 강화하여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한다.

선군사상은 혁명군대의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강화를 기본으로 내세

우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철두철미 혁명군대강화에 복종시켜 풀어나갈것을 요구한다. 선군사상을 확고한 지침으로 삼고 선군사상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해나갈 때 혁명군대를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튼튼히 준비시킬수 있으며 그에 의거하여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침략과 전쟁책동도 단매에 짓부셔버리고 반제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선군사상은 또한 인민들속에서 반제계급교양을 강화하여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한다.

조선에서는 계급교양거점들을 나라의 여러곳에 꾸려놓고 인민들속에서 반제계급교양을 강화하고있다.

반제계급교양을 통하여 조선인민은 높은 계급의식을 지니고 조국수호와 강국건설, 통일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다. 그리고 반제대결에서 언제나 결정적승리를 이룩하고있다.

이전 사회주의나라들은 조선에서와 같이 반제계급교양을 진행한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조장하였다. 결과 이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지게 되였다.

(2)에서는 선군사상이 반수정주의사상이라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선군사상은 우선 현대수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제국주의와의 타협과 협조, 이른바 《자본주의의 사회주의에로의 평화적이행》리론을 완전히 배격하고 반제립장을 확고히 고수할수 있게 한다.

현대수정주의자들은 세계사회주의운동의 분렬과 혼잡을 일으켰다. 현대수정주의자들의 책동에 의하여 사회주의진영은 두 갈래로 분렬되여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였다. 현대수정주의자들은 제국주의자들과 무원칙한 거래를 수많이 하면서 땅크와 포들을 용광로에 처넣었으며 사회주의진영의 일방적이며 일변도적인 무장해제를 하였다. 현대수정주의자들은 투항주의자들이였으며 비겁분자들이였다. 1962년에 까리브해위기가 발생했을 때 흐르쑈브는 6일만에 케네디의 요구에 굴복하여 제국주의자들에게 꾸바를 팔아먹었다. 현대수정주의자들은 《자본주의의 사회주의에로의 평화적이

행》리론으로 사회주의진영의 국방력을 약화시켰을뿐만아니라 세계의 공산당, 로동당들을 무력하게 만들어놓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은 분렬을 반대하고 사회주의진영내에서의 단결을 주장하는 한편 현대수정주의를 반대하는 로선을 취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혁명사적관에 가면 종합대학시기 알바니아류학생들을 만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진을 볼수 있다. 사진은 사람들로 하여금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한다. 흐르쑈브의 비렬한 행위들중의 하나는 알바니아가 수정주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여 이 나라를 헐뜯고 압력을 가한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알바니아 류학생들을 만나신것은 반수정주의련대성활동인 동시에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에 공헌하는 활동이라고 할수 있다.

자주의 기치,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든 조선은 자기의 로선과 정책을 견지하며 반제적립장과 사회주의원칙을 고수하는 세계의 유일한 사회주의나라이다.

조선은 제국주의자들과 현대수정주의자들의 압력을 단호히 배격하였다.

선군사상은 또한 현대수정주의자들이 떠드는 이른바 《세계평화》와 이른바 《국제적긴장상태》에 대한 주장을 배격하고 강력한 자위적국방력을 마련할수 있게 한다.

현대수정주의자들은 쏘련의 무장력이 전체 사회주의나라들을 보위하고있으며 쏘련의 수중에 장악된 최신군사기술과 로케트-핵무기에 의해서 세계평화가 유지되고있다고 꺼리낌없이 말하면서 다른 사회주의나라들에서 자체의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대해 국제긴장상태를 격화시키며 제국주의자들에게 전쟁도발의 구실을 준다고 하면서 시비하고 방해해나섰다. 이것은 사회주의나라들을 저들의 핵우산밑에 넣고 좌지우지하려는데그 속심이 있었다.

제국주의의 위협이 가증되고 나라를 지키는데서 대국들에 의존할수 없는 사실로부터 조선은 제국주의와 현대수정주의를 반대하여 자체의 방위력을 공고발전시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요구로부터 1962년 12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로선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2013년 3월 경제와 핵무력을 병진시킬데 대한 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병진로선은 보다 높은 단계에 이르게 되였다.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병진로선은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혁명의 최고리익으로부터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로선이며 조선인민이 값높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로선이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방침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방침에 그 뿌리를 두고있다. 력사의 교훈과 진리를 담고있고 오늘과 래일의진로를 밝혀주고있는 조선로동당의 병진로선의 정당성은 날이 갈수록 더욱힘있게 확증될것이다.

선군사상은 또한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된 힘으로 당과 혁명에 도전하는 종파분자들을 비롯한 온갖 원쑤들의 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부셔버릴수 있게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제국주의자들과 대국주의자들, 수정주의자들을 비롯한 내외의 원쑤들과 결탁된 현대판종파도당을 청산하였다.

한 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내부의 적이며 내부의 적 한놈은 외부의 적 백명과 맞먹는다. 2013년 12월 조선로동당 정치국회의에서는 제국주의의 허장성세에 겁을 먹고 자본주의사상에 오염된 타락한 사상적변질체인 현대판종파도당이 폭로분쇄되였으며 반역자들은 인민의 심판에 따라 처리되였다. 현대판종파분자들을 청산함으로써 조선인민은 제국주의자들과 대국주의자들, 수정주의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였다. 반혁명종파

도당을 청산한후 사회주의강국건설은 대고조기에 들어섰다. 지금 조선인민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단결되여있다.

현세계에서 가장 반제적이며 반수정주의적인 나라는 다름아닌 조선이다. 제국주의와 대국들에 도전하는 조선의 현실은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나라와 인민들에게 있어서 위력한 본보기로 된다.

제 2 장에서는 선군과 오늘의 조선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위대한 사상은 위대한 정치를 낳으며 위대한 정치는 위대한 현실을 낳는다. 선군정치로 조선인민은 최근 년간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사회주의를 수호하면서 나라와 민족의 강성번영과 부흥발전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으며 통일의 밝은 앞날을 펼쳐나가고있다.

제 1 절에서는 선군으로 사회주의를 수호한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1)에서는 선군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정치외교적고립압살책동을 분쇄한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조선과 제국주의세력과의 총포성없는 전쟁은 정치외교분야에서 치렬하게 벌어졌다. 조선에 대한 제국주의의 정치외교적압살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은 단순히 말과 말, 두뇌와 두뇌의 싸움이 아니다. 제국주의의 정치외교적압살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에는 언제나 군사적힘이 작용하게 된다.

국제정치외교사에는 제국주의자들의 강압에 못이겨 한걸음 후퇴한탓에 신성한 자주적권리를 침해당하고 나중에는 혁명의 전취물을 빼앗기는 일이 한두번만 있지 않았다. 제국주의의 정치외교적고립압살책동을 짓부셔버리자면 튼튼한 군사적위력이 있어야 한다.

선군정치는 제국주의자들의 정치외교적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실수 있게하는 필승의 담보로 되고있다. 전쟁이 터지느냐 마느냐 하는 일촉즉발의 시기에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되고 승리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선군정치의 빛나는 결실이다. 조선은 위력한 군력에 기초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정치

외교적고립압살책동을 걸음마다 단호히 짓부셔버리였다.

최근년간 이른바《인권》모략책동은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압살깜빠니야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제국주의와 세계독점자본은 조선에 존재하지도 않는 이른바 《인권》문제를 걸고 인민조선을 질식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이른바 《인권》을 리용하여 조선의 명성에 먹칠을 하려 하고있으며 공화국을 내부로부터 불안정하게 만들려 하고있다. 기난 기간 제국주의자들은 쏘련과 다른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는 이른바 《인권》문제를 리용하여 이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붕괴를 초래한 《헬싱키과정》을 유발시켰다. 제국주의자들은 최근 년간 조선에서의 이른바 《인권유린》에 대하여 억지로 주장하여왔으며 지어 다른 나라들을 강박하여 유엔에서 반공화국결의안이 통과되도록 하였다.

지금 조선을 적대시하는 세력들은 반공화국책동에서 《핵문제》로 출로를 찾지 못하게 되자 이른바 《인권문제》를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고있다. 그 목적은 조선을 반대하는 랭전식의 깜빠니아를 벌리자는데 있다. 그러한 지독한 반공화국심리전은 공화국에 대한 련대성을 보내기 어렵게 하고있다. 공화국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이 깜빠니아에 의해 귀신으로 되고 피해를 보기때문이다. 수많은 조선의 지지자들이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해고되여 일자리에서 쫓겨나고있다. 주체사상을 믿고 인민조선을 지지할수 있는 자유는 없다는것이다.

선군정치에 의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확고히 담보되는 조선에는 그 어떤 이른바《인권문제》도 제기되는것이 없다. 선군정치에 의하여 마련된 강력한 군사적담보밑에 사람들은 집을 쓰고 살 권리, 교육받을 권리, 무상치료받을 권리, 일할 권리를 향유하고있으며 지어 국가부담으로 휴가비까지 받고있다.

선군정치에 의하여 조선은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하고도 끈질긴 정치외교적고립압살책동을 성과적으로 짓부시고있다.

(2)에서는 선군으로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침략책동을 분쇄한데 대하

여 해설하였다.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있는 조선은 1990 년대와 2000 년대에 들어와서도, 현재까지도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수호하였다.

1995 년 1 월 1 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박솔 우거진 어느 한 인민군구분대에 대한 현지시찰을 진행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다박솔중대에 대한 현지시찰은 단순한 군부대시찰이 아니였다. 그것은 지금까지 총대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해온 선군정치의 전면적개시를 알리는 력사적선언이였다. 이 시찰은 선군정치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가는데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로 되였다.

선군은 자주이고 존엄이며 생명이라는 철리를 확증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사적위협에 조선이 굴복하리라고 예상한 제국주의자들을 얼떨떨하게 만들며 반제의 전투적립장을 굳건히 견지해나가고계신다.

제국주의자들과 세계반동들의 반공화국책동으로 2013 년 조선반도의 정세는 말그대로 위험계선을 넘어섰다.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은 조선이 2012 년 12 월 12 일 평화적인 민간위성을 발사한것을 걸고 조선에 제재를 가하였다. 제 3 차지하핵시험을 구실로 보다 강도높은 《제제결의》를 조작해내는 한편 방대한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

원쑤들이 칼을 휘두르면 장검으로 내려치고 총을 내대면 대포로 짓뭉개버리며 핵무기로 위협하면 보다 더 위력한 자기 식의 정밀핵타격수단으로 풍지박산내는것은 선군조선의 확고부동한 립장이며 원칙이다.

선군에 의하여 다져진 조선의 군사적위력은 적들의 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는 강위력한 보검으로 되고있다.

(3)에서는 선군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분쇄한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이미 쏘련과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을 붕괴시키는데서 사상문화적침투의 효과에 크게 재미를 본 제국주의반동들은 조선에 대한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벌리고있다. 인민조선에 대한 병적인 증오감을 가지고있는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쑤들, 온갖 반동들은 특히 사상문화적침투와 심리전, 이른바 《전도사》나 《비정부기구》로동자로 가장한자들, 기업가, 지어는 관광객들의 밀입국과 같은 책동으로 주체의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무너뜨리기 위한 온갖 책동에 매여달리고있다. 제국주의보도매체들은 하루도 어느 한시간도 빠짐없이 주체의 나라에 대한 그릇된 선전을 계속하고있다. 적들은 소형라지오를 들이밀기 위한 풍선작전, 종교미신을 퍼뜨리기 위한 작전, 돈으로 매수하기 위한 작전 등 별의별 작전들을 다 벌리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인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막지 못하면 사회주의사상의 변질을 가져오게 되며 사회주의사상이 변질되면 사회주의의 붕괴를 가져오게 된다.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인 사상문화적공세를 짓부셔버리자면 사회주의사상진지를 튼튼히 다져야 한다. 사회주의사상진지를 튼튼히 다지는 가장 효과적인 방도는 혁명군대를 먼저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로 키우고 그에 기초하여 전체 인민을 사회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다.

선군정치는 우선 군인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의 사상정신적풍모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 이르게 하고있다. 선군정치아래 인민군대안에서 사상교양사업이 집중적인 방법으로 강도높게 진행되고 모든 선전선동이 방어가 아니라 싸우는 군대맛이 나게 공격적인 화선식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였다. 그리하여 인민군대는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한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로 전변되였다.

선군정치는 또한 전체 인민이 인민군대에서 창조된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우게 하여 군대와 인민의 사상의 일치, 투쟁기풍의 일치를 확고히 보장하고있다. 선군정치에 의하여 전체 인민을 선군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

한 사상교양사업이 강화되고 온 사회에 혁명적군인정신이 차넘치게 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으며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를 막기 위한 빈틈없는 조치가 취해졌다. 그리하여 전체 인민이 산악같이 일떠나 사회주의사상으로 자본주의사상을 짓부시고 집단주의정신으로 개인주의의 요소들을 쓸어버리며 힘차게 전진할수 있었다.

선군조선의 사상적위력앞에서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반동적인 사상문화적침투책동도 맥을 추지 못하고있다. 오늘 선군조선은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사회주의사상의 결정체, 정치사상적요새로 전변되였다.

제 2 절에서는 선군으로 강국건설이 추진된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1)에서는 선군으로 정치사상강국건설이 추진된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주의는 사상을 틀어쥐면 승리하고 사상을 놓치면 망한다는 진리에 기초하시여 인민군대를 본보기로 하여 전체 인민들을 자기 수령의 사상, 자기 당의 사상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철저한 혁명투사들로 키우고계신다.

조선은 위대한 령도자를 중심으로 통일단결된 사회주의국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최고령도자로 높이 모신 조선은 이미 정치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섰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정치는 조선이 정치강국으로서의 체모를 완벽하게 갖추고 그에 기초하여 강국의 다른 면모들도 다 갖추도록 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과 군중시위, 청년학생들의 홰불행진을 통하여 조선은 세상에 없는, 오직 자기들만이 가지고있는 정치사상적위력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열병식과 군중시위에서 군인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열광적으로 환호하였다. 열병식과 군중시위는 군대와 인민이 대립되여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군민대단결을 시위하였다. 열병식과 군중시위가 끝나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중들에게 손을 흔들어주시였다. 열광적으로 만세를 부르는 군중

들의 모습은 참으로 감동적이였다. 평범한 외국인들인 주체사상신봉자들이 가장 강대한 나라의 위대한 령도자와 10~20m 안팎에 서있을수 있었다는것이 믿을수 없었다.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들을 보면서 주체사상신봉자들은 조선인민의 그 뜨거운 분출과 한덩어리가 되였다. 이것은 바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대한 조선인민의 열렬한 지지와 신뢰의 표시였으며 동시에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칭송의 표시였다. 10월 10일 저녁에는 청년들의 홰불행진에 뒤이어 다채로운 축포발사가 진행되였다. 날씨가 불리하였지만 조선의 청년들은 주저함이 없이 활력과 전투성을 지니고 행진에 참가하였다. 중요한 당창건기념일을 경축하는것이 기뻤기때문이였다.

군대와 인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단결되여 하나의 혼연일체를 이룬 나라는 이 세상에 조선밖에 없다. 이른바 《선진국》이라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것이다. 이것은 오직 선군정치에 의하여 담보되는 주체의 사회주의나라인 조선에만 있는것이다.

(2)에서는 선군으로 군사강국건설이 추진된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선군정치에 의하여 조선의 군사적위력이 불패의것으로 다져지게 되였다. 오늘 조선은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되고 군사기술적으로 고도로 현대화된 무적필승의 강군을 가진 나라, 총대중시, 군사중시가 사회적풍조로 되고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가 확고히 실현된 군사강국으로 되였다.

선군정치에 의하여 굳건히 다져진 조선의 무진막강한 군사적위력은 2015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경축하여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히 거행된 열병식을 통하여 잘 알수 있다. 이것은 조선이 세계적인 군사강국, 그 어떤 대적도 단호하고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릴수 있다는것을 공언한 선언으로 된다. 또한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는 야망을 가지고있는 무분별한 침략자들에게 무서운 경고로 되였다.

이전 사회주의나라들의 열병식은 의기소침해보였다. 도이췰란드민주주의공화국이 붕괴되기 직전인 1989년에 동도이췰란드수정주의자들이 진행한 열병식은 기백도 정신도 없는 쓸쓸하고 형식적인것이였다. 이전 쏘련

은 규모가 큰 열병식을 진행하군 하는 반면에 동시에 열병식을 반제적내용이 결여된 무력하고 무의미한것으로 만들며 《평화적공존》과 《긴장완화》의 구호를 내들었다. 오늘 일부 대국들이 거대한 열병식을 벌려놓을수도 있겠지만 그것들은 내용이 없는 단순한 구경거리들일뿐이다.

열병식을 통하여 조선은 누리에 위용떨치는 군사적위력을 온 세상에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3)에서는 선군으로 경제강국건설이 추진된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선군정치에 의하여 우선 제국주의침략위협으로부터 나라를 보위하여 경제건설에 필요한 평화적이며 안전한 환경이 마련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강요한 전쟁으로 나라가 페허에 잠긴다면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대하여서는 말할 여지도 없다. 선군이 내세우는 총대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에게는 준엄한 철추를 내리고 인민들에게는 행복을 담보해주는 총대이다. 인민군대의 총창우에 조국과 인민의 안녕이 있고 경제강국건설의 찬란한 래일이 있다. 선군에 의하여 마련된 혁명의 총대를 틀어쥐고 조선은 경제강국건설을 확고한 무력적담보밑에 진행해나가고있다.

선군정치에 의하여 또한 인민군대가 경제강국건설의 기수, 돌격대로 되고 그의 사상정신과 투쟁기풍으로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인민군군인들은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라는 구호를 들고 단숨에의 공격정신으로 시대적본보기들을 끊임없이 창조하며 경제강국건설의 전투장들마다에서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위훈을 세웠다. 조선인민군은 경제강국건설에서 주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있다. 수많은 건물들과 창조물들에는 인민군군인들의 노력이 어려있다.

주체화, 현대화가 실현된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건설되고 기간공업부문의 중요생산기지들이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 훌륭히 개건되였으며 기념비적창조물들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문화시설들이 수많이 꾸려진것은 바로 선군이 안아온 결실이다.

(4)에서는 선군으로 문명강국건설이 추진된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선군정치에 의하여 우선 제국주의침략위협으로부터 나라를 보위하여 문명강국건설에 필요한 평화적이며 안전한 환경이 마련되고있다.

침략과 전쟁의 불길속에서는 문명강국건설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선군이 내세우는 총대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에게는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타격을 안기고 인민들에게는 문명한 생활을 담보해주는 총대이다. 인민군대의 위력에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있고 문명강국건설의 휘황한 미래가 있다.

선군정치에 의하여 또한 인민군대가 주력으로 되고 그의 사상정신과 투쟁기풍으로 전체 인민을 불러일으켜 문명강국건설에서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게 하고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새로운 건축물들이 건설되였다. 2015년 당창건 70돐기념일을 맞으며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가 완공되였다. 주체사상탑전망대에 오르면 지난 몇년간 새로 일떠선 건물들과 건축물들을 볼수 있다.

호화주택이나 사치스러운 건물들과 같은것만 건설하고있는 영국과는 달리 조선에서는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주택과 문화시설, 학교들과 병원 등을 조선인민들자신이 건설하고있는데 그 사용은 모두 무료이다. 릉라인민유원지, 릉라곱등어관, 류경원, 인민야외빙상장,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을 비롯한 수많은 문화휴식시설들이 새롭게 건설되였다. 창전거리와 만수대거리, 은하과학자거리와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미래과학자거리를 비롯한 새로운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수많이 건설되여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공급되고있다.

서방세계에서는 꿈과 같고 생각할수도 없는 사실들이다. 런던중심의 강가에 있는 집을 세내자면 1만 2천파운드가 들고 사자면 백만파운드나 내야 하는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다. 황폐화되고 가난한 월위치 도크야드(내가 사는 곳)의 경우에도 집을 한채 사자면 2만파운드가 있어야 하고 세를 내자면 (전기, 가스, 물, 보험을 제외하고) 500 ~1 000파운드까

지 내야 한다. 영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세값을 낼수 없어 《잔인한 지주》들에 의하여 쫓겨나고있다. 2015년에 영국에서는 11 000세대의 가정이 세집에서 쫓겨났다. 15 000여명의 청년들이 런던의 거리들에서 고된 잠을 자고있다.

평양은 런던에는 있을수도 없고 또 대단히 비싼 유희오락시설들을 수많이 가지고있다. 릉라곱등어관에서는 곱등어들의 생동한 공연도 진행되고 곱등어들은 온갖 재간을 다부리며 사람들과 교감하고있는데 관람가격이 대단히 눅다. 평양지하철도는 (런던지하철도는 최소운임이 4파운드라고 볼때) 2페니의 균일한 비률로서 세계적으로 가장 눅은 지하철도중의 하나이다. 평양국제비행장은 인민군군인들이 주체의 정신으로 전적으로 자력갱생하여 건설하였다. 물론 많은 나라들이 현대적인 비행장들을 자랑하겠지만 그것들은 해외자본의 도움으로 건설된것이다. 그러나 평양국제비행장은 설계와 시공이 100% 조선의것으로 진행되였다.

평양의 밤은 활기있고 생활도 가득차있었다. 지어 책을 읽으며 걸어가는 대학생들도 있었다. 조선인민은 열심히 공부한다. 평양에서는 어린이들과 녀성들이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수 있다. 평양의 지하건늠길에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흔히 볼수 있는 집없는 사람들이 없다.

런던에서는 어린이들이 혼자서 밤중에 나가기 힘들며 거의 모든 부모들이 지어 낮에도 아이들을 밖에 내보내기 싫어한다. 또한 밤이면 런던의 거리들은 비칠거리는 주정배들과 사람들을 협박하는 머리수건이나 모자를 쓴 깽들로 가득차있다. 런던의 지하건늠길들에는 밤이면 집없는 사람들과 주정배들, 아편중독자들, 불량배들, 최하층민들과 범죄로 타락한 사람들로 꽉 차있다. 런던의 일부 지역들은 사람들이 지나갈 자리도 없다.

조선에서 각급 교육은 유치원으로부터 시작하여 대학에 이르기까지 무료이다. 대학생들은 무거운 채무를 지지 않으며 그들의 숙식과 교복은 무상으로 보장되고있다. 교육은 질좋은 설비들로 진행되고있다. 이것은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과 같은 종합대학들과 창광유치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일성**종합대학에 전자도서관과 수영장,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도서관은 전적으로 조선자체의 자금과 자원으로 건설되였다.

이처럼 선군은 난관과 시련을 뚫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투쟁을 벌려나가는데서 효과적이며 문명국가건설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있다.

제 3 절에서는 선군으로 조선통일의 전환적국면이 마련된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조선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 한강토에서 단일민족의 혈통을 이어오면서 찬란한 문화를 창조하여왔다. 이러한 조선민족은 외세에 의하여 지난 세기 40 년대 나라가 북과 남으로 갈라져 민족사의 장장 큰 불행을 겪어오고있다. 외세가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군사분계선에 의해 하나의 민족이 둘로 갈라지고 친혈육들이 헤여져 생사여부조차 모르고 고통을 겪고있다. 강토가 두 동강났을뿐아니라 사회제도도 판판 다른 두개가 생겨나게 되였으며 민족내부의 막대한 인적, 물적재부가 정치군사적대결에 소모되게 되였다. 분렬의 가슴아픈 현실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 반세기이상 지속됨으로써 민족의 통일적발전과 번영에는 커다란 장애가 조성되게 되였다.

조선의 통일은 조선민족에게 있어서 최대의 숙원으로, 지상의 과업으로 되고있다. 하기에 조선민족은 외세에 의해 국토가 둘로 갈라진 그날로부터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선군정치에 의하여 무엇보다도 적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이 분쇄됨으로써 조선통일에 유리한 환경이 마련되고있다.

적들은 조선이 고난의 행군을 할 때 인차 붕괴된다고 떠들었다. 지어 조선이 3 일이나 3 개월, 3 년안에 붕괴된다는 허황한 나발까지 불어댔다. 그러다가 조선이 고난을 이겨내고 군력에 기초한 국력을 높이 떨치자 붕괴설을 수정하여 연착륙론을 제창하기 시작하였다. 연착륙론은 조선과 적당한 관계를 가지면서 서서히 무너뜨리기 위한 교활한 계책이였다.

선군정치는 적들의 대조선적대시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는 보검이다. 선군사상에 의하여 다져진 강력한 군사력에 의거

하고있는 공화국의 위력앞에 조선의 통일문제에 코를 들이밀고 간섭하려는 적들의 책동이 걸음마다 분쇄되고 조선통일의 앞길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되였다.

선군정치에 의하여 다음으로 조선민족끼리 손잡고 나가는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려지게 되였다.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사이에 평양에서는 나라가 북과 남으로 갈라져 55년만에 처음으로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북남최고위급회담이 마련되게 되였다. 세계 각국의 신문, 통신, 방송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비행장에 나오시여 김대중을 영접하시고 조선인민군 륙해공군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는 모습을 특기할 사변, 20세기의 기적으로 대서특필하여 보도하였다. 지어 미국의 CNN방송과 일본의 NHK방송 등 많은 방송들은 정기방송까지 중단하면서 이 소식을 앞을 다투어 보도하였다. 력사적인 평양상봉을 취재하기 위하여 서울의 한 기자쎈터에만도 이른새벽부터 289개(그중 외신 173개)의 언론기관들에서 1 275명(그중 외신 503명)의 취재진이 몰려들어 붐비였다고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김대중과의 단독회담에서 7천만겨레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희망과 미래에 대한 락관을 주는 선언적인 문건을 하나 내놓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민족의 힘을 모아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룩할데 대한 문제와 통일방도에 관한 문제, 비전향장기수들의 송환과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방문단교환문제, 북남대화문제를 비롯한 조선의 통일실현에서 나서는 원칙적이고도 중요한 문제들을 주동적으로 제기하시고 그 해결에로 회담을 이끌어가시였다.

이렇게 되여 조선민족끼리를 근본핵으로 하는 5개항목으로 된 북남공동선언이 세상에 나오게 되였다. 북남공동선언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조선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갈것을 엄숙히 선언한 자주통일선언이다. 또한 북과 남이 대결과 전쟁위협을 끝장내고 동족사이의 신뢰를 도모하고 화합을 이룩해나가게 한 통일지향선언이다.

6.15 북남공동선언이 나오게 된것은 전적으로 선군정치가 안아온 민족사적사변이였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 하와이동서방연구쎈터 수석연구원도 자기의 글에서 《6.15 공동선언은 바로 선군정치의 산물이다. 북의 선군총대의 위세로 평양상봉이 마련된것이다. 군력으로 밑받침된 북의 자주통일로선이 있기에 조선민족끼리 손잡고 통일할것을 확약한 력사적인 자주통일선언이 나오게 되였다.》고 썼다.

평양에서는 2007 년 10 월 또다시 북남수뇌상봉이 마련되고 10 월 4 일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세상에 나오게 되였다. 10.4 선언에는《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조선통일의 리정표로 확인하고 그를 폭넓게 구현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이 밝혀져있었다. 구체적으로 북남사이의 군사적신뢰구축, 평화보장체제구축을 위한 실천적방안,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폭넓은 경제협력사업의 활성화, 《서해평화협력지대》설치제안, 2008 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에 북남응원단이 참가하는 문제, 백두산관광실시와 같은 문제들을 비롯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방도들이 천명되여있었다. 10.4 선언이채택됨으로써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은 더욱 힘있게 전진하게 되였다.

6.15 공동선언과 그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강령인 10.4 선언, 이것은 다름아닌 선군정치가 안아온 결실이다.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의 악랄한 책동에 의하여 북남관계에 다시금 금이 가기 시작하고 6.15 의 리념을 구현하는 로정에서도 적지 않은 시련과 난관을 겪게 되였다. 리명박, 박근혜를 비롯한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북남관계를 전면차단하고 온갖 도발행위를 일삼으며 동족대결과 반통일책동에 매달리였으며 조선반도에 침략전쟁의 불길을 몰아왔다.최근 박근혜는 일본의 조선강점과 박정희군사파쑈정권을 미화하는 남조선의 력사교과서 수정시도를 벌리였다. 박근혜는 자기를 태쳐(소위 《철의 녀인》로 불리운 1980 년대 영국보수파 수상)인체 자처하지만 태쳐는 수많은 영국인민들의 증오를 받은 녀자이며 따라서 박근혜가 죽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

와 경축할것이다.

민족최대의 숙원인 통일의 력사적위업이 이룩되는 날까지 6.15 의 리념과 의지는 절대로 달라지지 않을것이다. 그것은 조선민족끼리는 달리될수 없는 민족공동의 지향이고 념원이기때문이다.

선군의 기치와 그에 의하여 마련된 6.15 의 리념이 있기에 전체 조선민족은 반통일보수패당의 책동을 짓부시고 삼천리강토에 통일의 려명을 기어이 안아올것이다.

제 3 장에서는 선군의 세계적의의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오늘 선군정치는 조선반도의 경내를 훨씬 벗어나 전세계에로 급속히 파급되고있다. 선군정치는 복잡하고 첨예한 오늘의 세계정세속에서 커다란 견인력과 감화력을 가지고 진보적인류의 심장을 틀어잡고있으며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에게 철추를 내리고있다. 이것은 선군이 세계적인 성격을 띠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제 1 절에서는 선군으로 세계평화와 안전이 보장된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선군정치에 의하여 무엇보다도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이 짓부셔짐으로써 세계의 평화가 보장되고있다.

평화로운 세계에서 살려는것은 인류의 념원이며 새 세기의 요구이다. 국제무대에서 랭전이 종식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시대적과제로 제기되고있는 현시기 동북아시아의 평화보장문제가 부각되고있다. 지금 세계적으로 정세가 복잡하고 가장 위험한 전쟁국면이 조성되여있는 지역의 하나가 동북아시아지역이다. 동북아시아에서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격화시키는 기본요인은 제국주의자들의 대조선지배전략과 그 실현을 위한 책동이다. 세계를 제패하려면 그 중심인 유라시아대륙을 지배해야 하며 그러자면 유라시아대륙의 요충지, 가장자리를 먼저 타고 앉아야 한다는것이 제국주의자들의 세계제패전략의 론리이다. 랭전종식후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 대한 침략정책실현에서 군사력의 사용을 기본으로 보고 침략무력을 유럽으로부터 조선반도와 그 주변으로 이동전개하면서 이전 쏘련에 겨냥하였던 핵무

기까지 조선을 반대하는데로 돌리였다.

조선인민은 선군의 기치밑에 간고한 투쟁을 벌려 반세기이상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수호해왔으며 현시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보장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이룩하기 위한 전망을 열어나가고있다.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지 않고 평화가 보장되고있는것은 조선이 선군으로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한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지구상에 남의 나라, 남의 민족을 지배하고 억압하려는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더우기 반공화국압살책동이 로골화되고있는 조건에서 이것을 배격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며 조선반도의 평화,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나온것이 선군정치이다. 조선은 선군정치를 펼침으로써 특별히 어려웠던 1990년대이후 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대결에서 시종일관 승리하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지켜왔다. 선군은 조선인민의 자랑찬 평화수호투쟁의 승리를 담보하는 위대한 기치이다.

선군정치에 의하여 다음으로 미제의 침략과 전쟁책동이 짓부셔짐으로써 세계의 안전이 보장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으로 하여 세계에는 불안과 불안정의 분위기가 조성되고있다. 세계의 안전에 대하여 말할 때 제국주의자들의 무력증강과 전쟁책동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을수 없다.

세계의 안전은 조선의 강력한 군사적힘에 의하여 보장되고있으며 이리하여 선군정치는 조선반도와 전세계를 지배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전략을 파탄시키는 위력한 수단으로 되고있다. 조선의 강력한 자위적국방력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에서 힘의 균형을 보장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적극 이바지하는 력사적사명을 수행하고있다.

제2절에서는 선군으로 인류의 자주위업이 추진된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선군은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을 깨우치고 자주와 정의의 길로 힘있게 부르는 호소로 되고있다.

선군정치는 이미 세계를 진감하는 운명개척의 가장 영향력있는 사조로 공인되였다. 세계 5대륙의 그 어디에서나 선군사상을 지지하고 찬동하는 목소리들이 날마다 울려퍼지고있다.

선군정치는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운동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반제투쟁에서의 승리를 안아오고있는 선군의 위력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조선의 정의의 사회주의위업에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오고있다. 조선이 제국주의자들과 수십년째 총포성없는 전쟁을 벌리고있는 준엄한 환경속에서도 필리핀, 이딸리아, 영국, 도이췰란드, 브라질, 쿠웨이트, 그리스를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과 유럽동맹이 조선과의 외교관계를 맺은것은 다 선군의 위력이 안아온 응당한 결실이다.

선군의 기치밑에 그 어떤 시련속에서도 승승장구하는 조선에서 힘을 얻은 진보적인류는 세계적범위에서 반자본주의투쟁에 떨쳐나서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을 목표로 내세우고 적극 투쟁하고있다. 사회주의위업을 힘있게 추동하는 선군의 위력에 대한 세계적인 공인과 찬사는 평양선언을 대하는 세계의 많은 정당들의 립장에서도 뚜렷이 표명되고있다. 《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자》라는 제목으로 1992년 4월 20일 평양에서 발표된 평양선언은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세계 여러 나라 정당대표들의 선언이다.

선군정치는 다음으로 반제자주를 위한 세계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2005년에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의 수도 까라까스에서는 21세기 반제자주위업에 관한 세계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유럽을 비롯하여 40여개의 나라와 2개의 국제기구에서 온 대표단과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선군의 기치밑에 사회주의의 불패의 보루로 거연히 솟아 세인의 각광을 받고있는 주체조선의 위용은 세계의 모든 진보적이며 반제적인 인민들에게 큰 고무로 된다고 격찬하였다. 그들은 선군의 길만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

주적발전과 부강번영을 이룩하는 가장 옳바른 길이라는것을 확인하였다.

선군의 빛발아래 세계의 방방곡곡에서 반제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꾸바, 니까라과, 볼리비아, 에꽈도르, 베네수엘라 등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에서 반제자주의 기치를 들고 제국주의자들의 압력과 간섭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고있다. 아프리카에서도 반제투쟁이 앙양되고있다.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지배전략의 희생물이 되여 무지와 몽매, 기아와 빈궁에 시달리던 많은 아프리카나라들이 오늘날에 와서 제국주의의 지배와 예속을 끝장내고 자체의 힘으로 지역의 통합과 발전,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적책동, 신식민주의적간섭책동은 위기에 처해있다. 반제자주의 흐름이 모든 대륙, 모든 지역을 휩쓸고있으며 이것은 하나의 시대적추세로 되고 있다. 자주와 평화, 진보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적책동이 파탄되고있으며 세계는 자주화의 방향으로 줄기차게 전진하고있다.

선군은 커다란 감화력과 견인력을 가지고 세계인민들의 심장을 틀어잡고있으며 자주와 정의를 위한 그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세계의 진보적인민들과 정계, 사회계의 수많은 인사들은 조선의 선군정치를 반제자주화위업의 고무적기치로 높이 찬양하면서 그것을 따라배울 한결같은 열망에 넘쳐있다.

세계진보적인민들의 이러한 격찬에는 위대한 선군사상, 불패의 선군정치로 세계의 평화안전과 반제자주위업을 위한 투쟁을 주도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인류의 밝은 미래가 열릴것이라는 희망과 신심이 비껴있다.

선군사상의 세계적영향력은 막을수 없는 힘으로 세계곳곳에 미치고있다. 바다로 도도히 굽이쳐가는 대하의 흐름을 멈춰세울수도 막을수도 없듯이 선군사상의 견인력은 절대로 막을수 없다.

맺는말에서 선군사상에 대한 연구를 개선하고 더욱 심도있게 진행하며

선군사상연구보급활동을 힘있게 추진시켜나가는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령도하고 계시는 조선에 대한 지지와 성원으로 된다고 하면서 세계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신봉자들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연구보급활동을 더욱 힘있게 벌림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하고 교활한 반공화국집중공세를 결정적으로 분쇄해버려야 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